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5차)

개최일시	2018. 4. 17(화)16:00~18:3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석자 (13명)	김상택(위원장), 김혜린(동아리연합회 회장), 도재형(총무처장), 류한영(재무처장), 문지영(대학원 학생회장), 신혜슬(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안현주(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이공주복(교무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정한경(학부 총부학생회장), 차안나(학부 총학생회장), 최성희(학생처장), 최혜련(예산팀장)		
불참자 (0명)			
안건	'17년 교비 및 부속병원 회계 결산(안) 및 '18년 부속병원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결		
내용	<p> ■ 위원장 선출 재무처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개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며 의장 호선을 제안하다. 재무처장이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대학원 학생회장이 제청한 후,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기획처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p> <p> ■ 회의내용 </p> <p> 1. 논의사항 </p> <p> 가. 등심위 학생위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회의 순서가 교비회계 결산(안), 부속병원 결산(안), 부속병원 추경예산(안)임을 설명하고 재무처장에게 교비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다. - 총부학생회장이 보고에 앞서 4월 13일에 발송한 학생회 공문에서 언급한 학생위원들의 등심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은 지난 1~4차 등심위를 통해 학생위원들이 등심위에 대해 요청한 사항과 교직원위원의 답변이 기록된 회의록을 토대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회의장 내에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하다. 학생위원의 요구안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의에 길게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다. - 총부학생회장이 왜 공문 회신이 되지 않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공문을 금요일(4.13) 오후 6시에 접수하여, 이에 대해 내 부결재를 진행하고 교직원위원 모두에게 공유된 상태라고 말한다. 답변을 준비하여 공문을 발송할 시간이 부족했음을 말하며 오늘 회의에서 답변하고자 했음을 말한다.

- 재무처장은 학생위원이 공문을 송부했으니 공문으로 답변을 회신하는 게 맞지만 시간상 준비를 하지 못했고, 공문회신을 할 때 까지 논의를 보류할 수도 있지만 오늘 회의장에 모든 위원이 모였으니 이곳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4차 회의에 걸쳐 참관인 허용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직원위원은 모든 구성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라고 답변하였고, 4차 회의 때에는 참관인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의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데 학생을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학교는 어디까지 논의했는지 답변을 요구하다. 또한 법인전입금 관련해서도 법인책무성을 다 하도록 학교에서 노력해달라고 하였고 예산팀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 습비 공개여부와 상세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관련 합의서와 등록금인하와 징수근거가 없는 입학금 즉각 폐지, 등심위 구조개선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이전 회의록에 기록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에 대한 노력은 예산 집행률 독려에 대한 부분이었음을 확인하고 말한다.

- 위원장이 법인에 법인전입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전화로 문의하였고 현재 법인에서는 수익금을 보내고 거기에 보태서 더 보내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전출금액한도에서는 최대한의 금액을 전출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참관인 허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보면 참관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생위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다. 학생위원들이 언제, 어느 부서에 발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건지 질문하다.

- 총학생회장은 그날 회의장에서 발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말한다.

- 총부학생회장은 법인 책무성에 관해 문서가 아닌 전화통화를 통한 답변으로 법인책무를 다한다고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하다. 지난 회의부터 지금까지 진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진전될 여지가 없는지 질문하다.

다.

- 학생처장은 법인 책무성 강화에 대해서는 이화인 10대 요구안에도 포함된 사안이며, 학생처에서도 요구안에 대해서 법인에 답변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한다. 법인이 창출하는 수익은 제한적이며,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은 모두 전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인다.

- 총학생회장이 해당사항은 지난 등심위에서도 언급한 사안이며 재무처장이 관련 회의록을 법인에 전달한다고 하였고, 이 사안은 논의가 필요하여 즉답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등심위 이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질문하다.

- 재무처장은 법인과 학교가 문서를 주고받는 것만이 법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아니고, 이사장님과 총장님의 만남에서 언급되고 논의되는 것도 모두 이러한 노력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사장님과 총장님의 만남에서 이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다. 이 과정에서 법인에서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법인전입금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법인부담금 자체가 줄어서 전입금이 줄어든 것이면 법인이 더 전입금을 낼 여력이 있는 것임을 지적하다. 따라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위원장은 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익 모두를 학교에 전출하는 것 같고 법인에서 수익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돈까지 합하여 전출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법인에서는 지속가능한 전출을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며 기본적으로 법인이 수익용 재산이 충분하지 않고 수익성이 좋지 않음을 덧붙인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는 법인전입금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줄였다는데, 줄일게 아니라 충분한 이익을 낼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닌지, 법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질문하다.

- 학생처장은 다른 창립자가 있는 학교와는 달리 본교와 법인의 관계는 법인이 수익을 못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학생처장의 말에 동의를 표하며 높은 수익률은 위험을 동반하는데, 높은 수익률을 위해 위험한 자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경우 그 위험 부담을 학교도 안게 됨을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이 법인이 이화 의료원에 20억 전출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법인이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다. 의료원에 지원할 돈은 있는데

학교에 마땅히 납부해야하는 법인전입금은 왜 못내는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의료원 상황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지원이 없이는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다. 또한 의료원은 의과대학이 수련하는 곳으로 우리와 무관한 곳이 아니고 의료원 상황악화는 학교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다. 법인이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지책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말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의료원 수입이 감소하였냐고 질의하며 마곡병원 신축공사로 기체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전입금을 받을 정도면 그러한 사항도 고려해야 했음을 지적하다.

- 위원장은 기체를 발행하여 마곡병원을 신축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작년 12월 사태로 인해 병원의 수입이 급감하여 상황이 어려워졌음을 말하다. 신축하는 마곡병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의료원은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학교에서 의료원에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도와준 것임을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은 법인전입금을 모두 안 주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하다.

- 재무처장이 의료원 지원은 단발성이지만 학교의 법인전입금은 지속적인 것임을 말하다. 학교에는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주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이고 병원은 크게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법인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무리해서라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하다. 만약 학교에 병원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인은 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질의의 의도가 법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학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었음을 말하다. 교직원위원이 법인을 대신하여 변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전화통화와 같은 것이 노력의 전부라면 노력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하다.

- 재무처장은 총장이 법인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의를 하고 있는 것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그러한 사항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에 불만을 표하다.

- 재무처장은 총장과 이사장간의 논의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유해야할지 난감하다고 말하다. 매번의 논의내용을 공유해달라는 건지 질문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일단 논의를 공유받지 못해서 학생위원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몰랐으며 공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다.

- 예산팀장은 입학금의 징수근거가 없다는 이전 회의의 논의 사항에 대해 질문하다.

- 총학생회장은 회의 때 논의한 것은 없고 입학금은 사실상 등록금의 일환으로 받는 것이라는 자료답변을 받았고 이는 징수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말한 것 이라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은 입학금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의 일부인 “그 밖의 납부금”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수업료와 함께 등록금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교육비로 사용하여 오고 있음을 말하다. 2018학년도부터 교육부에서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감축하라는 요청을 하여 왔기에 정부시책에 따르고 있음도 설명하다.

- 재무처장은 단계적 감축 또한 학교 재정은 어려운 상태이나 국민적 공감에 따른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학교는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을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등심위 구조개선 관련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다.

- 재무처장은 학생들의 요청이 법에서 명시한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라 난처함을 표하다.

-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구조개선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맞는지 확인하다.

- 재무처장은 관련해서 학생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된 것이 없음은 맞다고 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서울대와 같이 동수구성이 잘 되어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충분히 논의되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 재무처장은 국립대가 우리와 같은 사립대학과는 달리 이번에 입학금을 축소하면서 그 손실분만큼의 재정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던 사례가 보여주듯이, 우리 학교를 국립대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고려대, 연세대 등 대다수의 주요대학에서 우리학교와 같은 방식의 구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들과 비교할 때 우리 학교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다.

- 총학생회장은 등심위는 우리학교의 등록금과 예산에 대해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며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학생위원들이 불참해 가며 수년간 요구한 것이고, 구성원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면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이라고 말한다.

- 총부학생회장은 다른 학교 학생들도 등심위 구조에 대해 비슷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구조개선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학생 당사자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참관인 허용, 실험실습비 공개, 법인책무성 관련하여 지난 등심위에 비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확인하다.

- 학생처장은 참관인 허용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정식으로 발의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발의안에 참관인 자격, 범위, 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의해야 논의가 가능하며, 학생위원들이 의견을 낼 때 참관인 허용의 문제점, 우려점, 보완점까지 제시하면 좋겠다고 회의록에 남겼다고 하다. 이에 대해 학생위원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발의만 하고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고 학생이 있는 테이블에서 논의해야하는 것이라고 하다. 학생위원이 제안한 것은 참관인 허용이고 우려사항이 있으면 교직원 위원이 우려점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다.

- 학생처장은 요구하는 참관인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하다.

- 재무처장은 지난번 회의 결론으로 참관인을 허용하지 말고 회의록을 최대한 상세하게 써서 공개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참관인 허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한다. 보다 진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면 학생위원들이 요구하는 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하며, 참관인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가지고 논의하자면 지난번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음을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참관인 허용은 참관인 허용 그 자체를 의미하며, 그냥 참관인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다.

- 총학생회장이 지난번에 학생 외에 다른 구성원도 참관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논의되었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참관인 허용 논의를 하려면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하고, 방식, 형태, 범위, 자격 등에 대한 안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참관인 허용은 수백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참관인 허용 개념은 인원제한을 적용 한다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 학생처장과 총무처장은 그러한 참관인 허용은 반대한다고 의사를 밝히다.

- 총학생회장은 반대 이유를 질문하다.

- 총무처장은 위원회를 공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회의에는 물리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관인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다. 지금처럼 제한 없이 참관인을 허용하는 안이라면 반대한다고 답변하다.

- 총학생회장은 등심위가 다른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회의체인 만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회의록도 상세하게 공개가 되는 데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회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다.

- 재무처장은 회의를 하다보면 의도치 않은 표현의 실수로 인해 의사전달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참관인 허용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자유로운 발언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통해 수정할 기회를 가지고, 대신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자고 합의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참관인의 무조건적인 허용은 반대를 하는 것이니 참관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위원들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학생위원이 요구한 것은 참관인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고 교직원 위원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위원들이 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참관인이 오는 경우 발언의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무거운 회의체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안건 심의 시작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요구안들이 결론 없이 중단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인 논의 진행을 요구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오늘 회의의 자료도 상세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하다. 예를 들어,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했던 특정목적기금 항목에 상세한 내역이 마찬가지로 전혀 없음을 지적하다.

- 재무처장은 학생위원들이 관항목까지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는데 현재 자료가 관항목까지 제시된 것임을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은 관항목까지의 자료제공은 최소한을 제시한 것이며 아직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은 기본적으로 “목”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작성하였으며, 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수입 계정은 재원에 따라 분류하여 근거를 작성하였음을 설명하다. 그리고 특정목적기금 항목 상세내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배부하다.

-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시 첫 번째 안건심의 시작을 제안하다.

- 모든 위원이 동의하고 17'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를 시작하다.

나. '17년 교비 결산(안) 심의

- 재무처장이 '17년 교비회계결산에 대해 보고하다. 총결산액은 4,141억 원으로 추경예산대비 43억 감소하였으며 기금인출을 제외한 수입은 대학원 충원률 및 단기수강료 감소, 병원 전입금 감소 등으로 추경예산대비 58억 원 감소하였고 기금적립을 제외한 지출은 급여변동, 퇴직 등으로 보수가 감소하고 관리운영비, 연구비 미집행 등으로 68억 원 감소하였다고 말하다. 추경예산에 비해 기금적립은 10억 원 증가하였음을 말하다. 이는 2017년에 집행되었어야 하는 건축비가 2018년으로 미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올해 더 많은 기금의 감소를 예측한다고 보고하다. 또한 각 기금은 목적별로 사용되었음을 설명하고 관련 질의를 요청하다.

- 외부위원이 향후 특정목적기금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또한 특정목적기금은 이화의 미래를 위한 투자목적 기금인데, 기금잔액의 감소로 인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다.

- 재무처장은 올해 특정목적기금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이 있을 예정이며 해당 금액은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다. 다만 지속적인 수지악화로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다. 그리고 다른 기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원금이 줄어들어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여 판단해야하는 문제라고 말하다.

- 총무처장이 병원전입금 68억 감소는 최근 병원 사태로 인한 것인지 질문하다.

- 외부위원은 마곡병원 오픈이 일정대로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하며, 병원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의료수익이 크게 줄지 않았음을 지적하다.

- 재무처장은 작년 12월에 병원 사태가 나면서 결산 때 들어올 병원전 입금에 못 들어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임을 설명하다. 또한 마곡병원 건축은 기채발행을 통한 것이어서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병원의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말하다.

- 교무처장은 3~12월 수입은 좋았으나 병원 사태가 연말에 발생했기 때문에 '17년 결산에서는 수입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다. 병원의 의료수가도 떨어졌음을 덧붙인다.

- 총학생회장은 고정자산의 기자재, 토지건축 등이 추경보다 덜 집행된 이유를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재정지원사업과 연구기자재 구입 등이 사업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유망전공사업으로 집행된 기자재는 구입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입고가 지연되어 품의 이월되었음을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은 차기자금이월금이 추경예산보다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그 내역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차기자금이월금의 내역은 재정지원사업 40억 원, 자체과정 이월금 32억 원, 선급법인세 19억 원, 등록금 회계 이월금은 명시이월 5억 원, 기타이월 1억 원 등으로, 이중 기타 이월금 1억 원은 2018학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않았던 학생관련 경비에 편성하고자 함을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추경에 비해 학생경비가 48억 감소하였고, 학생지원비는 11억이 감소하였음을 지적하다. 교내장학금은 왜 3억이 감소하였는지 질의하다. 지난 등심위에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예산집행 독려를 위한 공문을 전교에 시행하고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공유하였으며, 배정 예산에 대한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의 집행률을 확인하고 지출을 관리하였음을 말하다. 등록금 회계에서의 학생경비 집행률은 약 95% 임을 말하다. 전체 학생경비의 예산 잔액 중 재정지원사업 및 자체 수익기관이 약 39억 원 정도라고 덧붙인다. 재정지원사업 및 자체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하다.

- 학생처장은 등록금 회계에서 학생지원 관련한 부분은 거의 다 집행했

음을 말하며, 장학금의 감소는 대학원 총원율의 감소로 인한 것이고 학부장학금은 줄어들지 않았음을 말한다.

- 재무처장은 지난 등심위 이후 예산 집행을 독려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팀에서 집행률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 총학생회장이 에너지 장려금이 무엇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천연가스 냉방설비 설치나 수요반응제도 참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이라고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은 고정자산 수입의 토지매각대금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질문하다.

- 예산팀장이 송죽리 및 북아현동에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발생한 것임을 말한다.

- 총무처장은 교육용 토지 중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매각한 것임을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추경예산에서 기숙사 수입이 줄어든 것을 학생위원이 지적했었는데 결국 결산 때 5억이 증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다.

- 예산팀장은 기관수입은 예산 편성 시점에서 기관이 예측한 수입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결산 시점에서 편성된 예산과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말한다. 예산팀에서 현업 부서의 예측 수입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한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는 지출부 보수가 줄었는데 그 원인이 인원의 감소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추경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 했던 퇴직이나, 중간 급여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임을 설명하고, 미집행 된 인건비 잔액은 추경예산의 1.2%임을 덧붙인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학교에서 받는 냉난방비는 어느 수입계정에 집계되는 것인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교내 각관의 대관시 발생하는 수입은 대여료 및 사용료

	<p>수입으로 집계됨을 설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연합회장은 특정목적기금은 기금명에 맞춰서 적립하고 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금명만으로는 이름이 애매해서 구분이 어렵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은 자산설비 운영기금은 교지.건물 유지 관리 및 자산 운용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글로벌여성교육허브기금은 EGEF 사업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강좌사업 등에 사용하였으며, Ewha Wave기금은 대.내외 홍보관련 사업, 그리고 이화미래전략기금, 대학역량확충기금, Innovation Ewha기금, 우수역량확충기금은 정책사업, 국제교류사업, 기부금 모금 사업,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은 이화해피펀드는 올해 처음 생긴 기금인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2017년도 생겨 현재 약 4천만 원 가량 모금되었으며, ‘억원’ 단위로 자료가 만들어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17년도 교비 결산안을 의결하고 다음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의결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위원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의장을 나가겠다고 하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야한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 요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래 논의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첫 번째 안건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일단 이를 심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은 오래 논의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 동의하며 학생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의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위원들은 회의체 자체가 학생들에게 비민주적이기에 학생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심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몇 년에 걸쳐서 학우들의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이다. - 총무처장은 학생위원의 뜻은 이해하였으나 병원의 상황이 학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사안은 정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위원이 끝까지 함께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

- 위원장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미 보고한 사항이어서 병원 상황 관련해서는 총학생회장과 대학원 학생회장은 알고 있다고 말하며 시간상 의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덧붙인다.

- 총학생회장은 의결하는 자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으므로 지금 의결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회의에 계속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하고 학부학생위원 전원이 퇴장하다.

- 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결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교무처장, 재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대학원 학생회장 총 8명이 찬성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17년 교비회계 결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교비회계 '17년 결산(안)

다. '18년 부속병원회계 추경 예산(안) 심의

- 병원 기획예산과장(이하 '기획예산과장')이 '18년 부속병원회계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비해 수입부의 법인전입금 20억 증가로 지출부의 고정자산이 20억 증가하였고,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개선공사와 의료장비 구입 및 무균조제실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 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속병원 추경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교무처장, 재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명이 찬성하고 대학원 학생회장이 기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18년 부속병원 회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18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라. '17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

- 위원장이 부속병원에 결산보고를 요청하다.

- 병원 경리과장(이하 '경리과장')이 자산은 2016년 대비 1,324억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작년대비 1,468억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작년대비 125억 감소한 것으로 결산을 마감하였다고 말하다. 의료수익은 작년대비 112억 증가하였고 의료외수익은 6억 증가하였으며 총의료비용은 228억, 의료외비용은 1.8억 감소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려하였을 때 전년대비 손실이 3.6억 증가하여 -16억으로 마감하였음을 말하다.

- 외부위원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설정했는지 질의하다.

- 경리과장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 회계법인에서 쓰는 계정이며 추후에 고유목적에 위한 충당금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하다. 목동병원이 교비 회계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법인이다 보니 법인세 감면 등 세금을 감면화하는 효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하다.

- 외부위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반영하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모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병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설정 가능한 사안인지를 질문하다.

- 경리과장이 학당에 합쳐서 세무조정을 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금액을 반영하여 의료원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다. 해당 준비금을 반영하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후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다른 사립대 병원에서도 동일하고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위와 같이 적립한 금액은 5년 안에 쓰게 되어있는 것으로 계속 적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이다.

- 총무처장이 인건비의 증가를 지적하며 인원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를 질문하다.

- 경리과장이 진료와 관련된 인력이 증가하였으며 비전임의가 19명, 간호사가 47명, 임시직직원이 11명 증가하여 총 77명 정도 증가했음을 말하다.

- 학생처장이 통상적인 증가임을 질문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갖춰야하는 간호사 인력이 있어 올해 간호사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총무처장이 일속직수당을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한 것인지 질문하다.

- 경리과장이 교수나 직원, 간호사가 근무교대로 야간당직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를 복리차원에서 수당지급을 하였으나 세금문제로 인건비로 변경한 것임을 말하다. 또한 상여를 통상임금에 반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간급이 늘어나면서 수당이 증가하였다고 덧붙이다.

- 외부위원이 추경예산을 의료수입증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료비가 결산액 968억에서 추경예산액 830억으로 138억이 줄어들고, 관리운영비도 추경예산에서 100억이 감소하는데, 결산에 비해 수익이 줄어드는 폭에 비해 지출이 줄어드는 폭이 큰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경리과장은 관리운영비는 결산에는 감가상각비 128억이 반영된 것이고 추경예산(안)에는 자금의 흐름이라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재료비는 의료수입과 관련이 있는데 의료비용에 대해 본예산을 편성 시 전반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재료비도 같이 줄이다 보니 비율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하다.

- 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속병원 추경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교무처장, 재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명이 찬성하고 대학원 학생회장이 기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17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부속병원회계 '17년도 결산(안)

■ 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8년 4월 17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김상택	김상택	위 원	이공주복	이공주복
위 원	김혜린	김혜린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정한경	정한경
위 원	류한영	류한영	위 원	차안나	차안나
위 원	문지영	문지영	위 원	최성희	최성희
위 원	신혜슬	신혜슬	위 원	최혜련	최혜련
위 원	안현주	안현주			

작성 자 예산팀 안 예 지 (안예지)